

경주 남산 열암곡사지 석조불상 연구

이희진*

- I. 머리말
- II. 열암곡사지와 석조불상
- III. 열암곡사지 석조불상의 조각사적 의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경주 남산¹ 列岩谷寺址는 고위산(해발 494m) 남서쪽 白雲溪 본류의 오른쪽 列岩谷에 위치한 절터이다.² 경주시 내남면 노곡2리 마을회관에서 백운암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가면 열암곡

* 울산박물관 학예연구관

¹ 경주 남산은 1971년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로 지정되었고, 1985년 사적 제311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경주역사유적지구)으로 등재되었다.

² 옛날에는 列岩谷이라 하였으나, 현재는 새갓골로 알려져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경주 남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안)』(2003), p. 235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2010. 1.), p. 32, 주4) ; 현재까지 출간된 보고서 등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있으며 다시 800m정도 오르면 열암곡사지에 이르게 된다.³ 현재의 열암곡사지는 보수된 모습이지만 그 전에는 건물의 초석들과 넘어지고 깨진 불상의 부재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는데,⁴ 2007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주변을 발굴조사하고 불상과 절터를 보수·정비하였다.⁵ 그 과정에서 2007년, 보수·정비된 석조여래좌상과 30m 정도 거리에서 5m가 넘는 대형 마애여래 입상이 넘어진 채 발견되면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열암곡사지의 두 불상들은 발견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연구 성과는 적은 편으로 그 동안 조사 보고서와 논문 두 편 정도가 발표되었다.⁶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석조여래좌상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작품이며, 마애여래입상은 湧現佛로서 瑞像의 성격을 가졌고, 해공왕 15년인 779년 경주의 대규모 지진에 의해 마애여래입상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열암곡사지에 있는 두 여래상의 제작시기를 다시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가람의 형성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남산의 불적을 통한 조각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慶州南山』 白雲溪 새갓골 第3寺址 (새갓골 불상 절터)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 백운계 새갓골 절터	『慶州古蹟巡禮』 백운계 새갓골 절터	『慶州南山의 佛敎遺蹟』Ⅱ·Ⅲ 새갓골 제3사지
---------------------------------------	------------------------------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남산』(2002), pp. 13-17, 寺址名稱對比表 참조)

- 3 열암곡사지의 행정적 위치는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산119번지로 열암곡 제3사지에 해당된다. 절터는 해발 300-325m에 위치하며, 골짜기 바닥을 기준으로 동쪽의 사면과 능선은 경사가 가파른 바위로 형성되어 있고, 서쪽은 골짜기 사면이 완만하고 바위가 드문 지형이다. 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한 제3사지는 골짜기 동쪽 사면을 따라 발달해 있는 암반 위에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하였고, 제2사지는 동쪽 능선상의 암반에 축대를 쌓아 조성하였으며, 제1사지는 골짜기 가운데 흐르는 계류를 중심으로 서편의 완만한 사면에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세 곳 중 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한 제3사지의 입지가 가장 규모가 크고 높은 곳에 위치한다.
- 4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남산의 불교유적Ⅲ : 동남산 사지조사보고서』(1998), pp. 211-213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경주 남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안)』(2003), pp. 237-238.
- 5 열암곡 석조여래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1979.1.25 지정)의 佛頭와 中臺石은 遺失되었으며, 나머지 불상과 광배 그리고 상대석과 하대석은 파손되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2005년 남산의 문화유적을 답사하던 한 등산객(임희숙, 배만수)에 의해 석조여래좌상 아래쪽 溪流에서 불두를 발견함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남산 보존·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에 대한 정비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면적은 석조여래좌상을 포함한 주변 1,000㎡로 2007년 3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70일간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보고서 (2010. 1.), pp. 32-34
- 6 열암곡사지와 관련된 보고서 및 논문은 다음과 같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2010.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2010. 10.), 임남수, 『열암곡마애불상과 남산』, 『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2010. 10.), 진광민·이민정·김영석,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여래입상 붕괴에 대한 지질학적 접근』, 『지질학회지』제45권 제 3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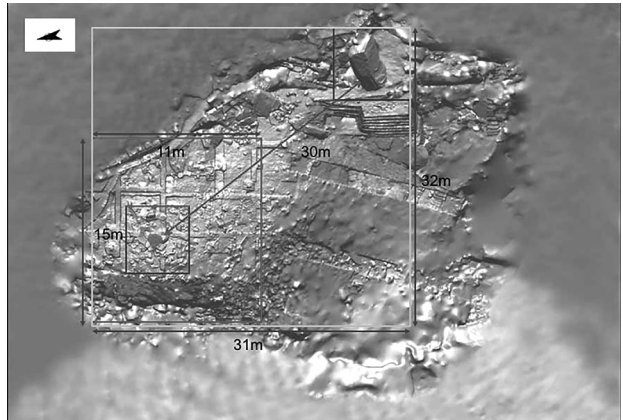
II. 열암곡사지와 불상

열암곡사지는 제1사지, 제2사지, 제3사지를 포함한 산지가람이다.⁷ 석조여래좌상과 마애여래입상이 있는 제3사지는 산길이 시작되는 기점에서 8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도 1). 이 중에서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제3사지는 동서 15m, 남북 11m 정도의 평평한 대지에 형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석조여래좌상이 있고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30m 떨어진 위치에 마애여래입상이 있다.⁸ 따라서 마애여래입상을 포함하는 전체 절의 규모는 동서 32m, 남북 31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도 2).⁹

발굴조사한 제3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을 살펴보면 여래상 중심으로 3동의 건물지가 중첩되어 있고, 여래상에서 남쪽으로 약 12m 떨어진 곳에 부속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중 ②번 건물지가 석조여래좌상 제작시기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또한 건물지의 구조와 대좌 하대석의 위치로 볼 때, 여래좌상은 금당 중앙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도 3).¹⁰



도 1 열암곡사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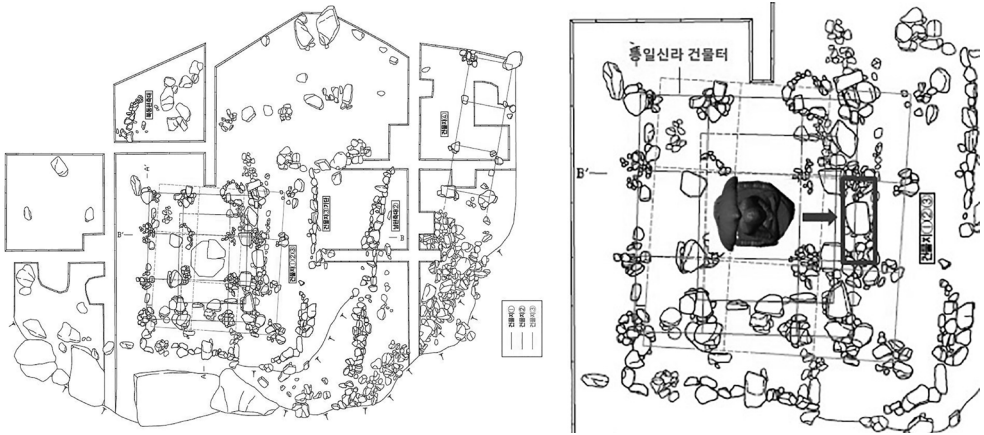
도 2 3D 스캔 열암곡사지 유적 현황도(『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pp.34-35. 참조)

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보고서 (2010. 1), pp. 73-74.

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보고서 (2010. 1), p. 34.

9 경주 남산 열암곡사지의 규모는 석조여래좌상과 마애여래입상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생각되는데, 석조여래좌상에서 마애여래입상이 위치한 거리는 30m로 가까운 거리로 볼 수 있으며, 마애여래입상이 있는 곳은 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한 축대 구역에서 볼 때 바로 인접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두 불상은 같은 능선 라인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사역에 모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10 불상의 앞은 방향과 건물지의 정면 방향으로 서로 관련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건물의 규모와 여래상의 규모를 생각해볼 때 작업 공정상 석조여래좌상을 먼저 안치하고 건물을 조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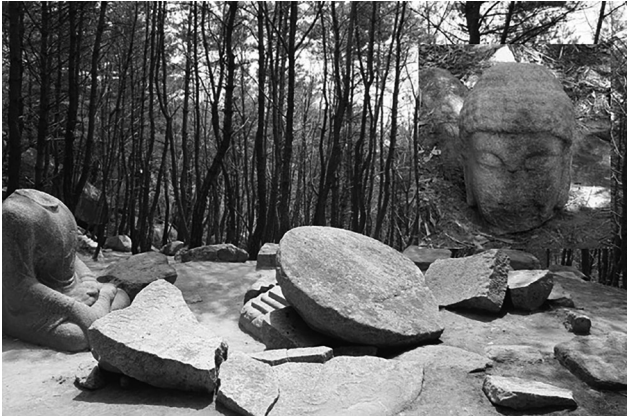
도 3 열암곡사지 건물지 평면도(『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pp.36-37. 참조)

1. 석조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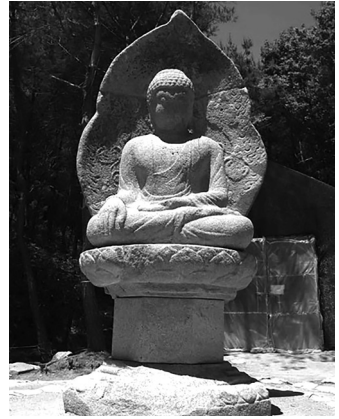
열암곡 제3사지의 주존불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은 불상의 머리와 대좌의 중대석이 없어진 채 여래상과 광배 그리고 상대석과 하대석이 파손되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도 4). 그런데 2005년 10월 23일, 경주남산연구소의 한 회원이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을 답사하던 중 여래상의 머리 부분을 발견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주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 발굴조사와 보수·정비를 거쳐 2008년 12월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되었다(도 5).

석조여래좌상은 팔각연화대좌 위에 화염문과 화불이 표현된 주형광배를 배경으로 結跏趺坐로 앉아 降魔觸地印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둥근 얼굴에 넓고 낮은 육계가 있으며 편삼 위에 偏袒右肩의 대의를 걸쳤다. 신체는 당당한데 앞으로 내민 가슴에 비해 허리는 다소 잘룩한 편이다. 광배는 상단의 끝이 뾰족하게 솟아있고 하부로 내려 갈수록 두터워져 안정적인 모습이며 상단과 좌우 외곽이 여래상을 감싸 듯 안쪽으로 턱이진 거신광배이다. 불상과 광배를 받치고 있는 대좌는 중대석이 결실된 채 상대석과 하대석만 남아 있었는데, 2008년 보수·정비 과정에서 중대석을 복원해 세웠으며 원형의 상대석 올림연꽃(仰蓮)과 팔각의 하대석 내림연꽃(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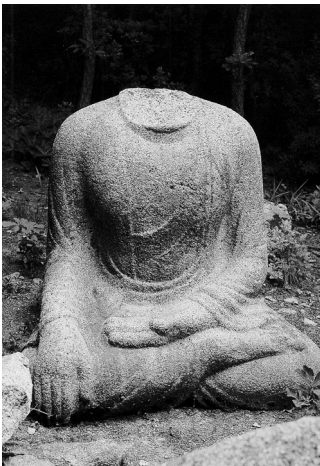
여래상을 먼저 안치한 후 건물을 조성했다면, 건물의 위치와 방위는 여래상의 앉은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보고서 (2010. 1.), p.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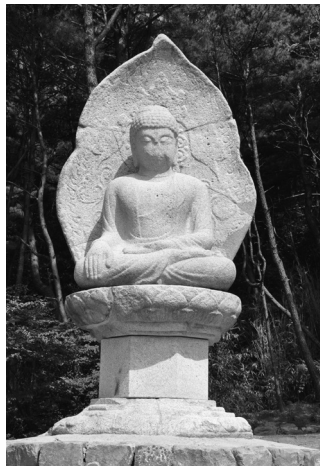
도 4 보수 전 열암곡 석조여래좌상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pp.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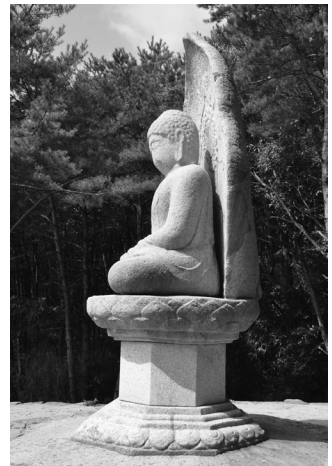
도 5 열암곡 석조여래좌상 (보수 후) 전체
높이 389cm(『경주 남산 열암곡석불
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p.11.)



도 6-1 열암곡 석조여래좌상 앞면
(보수 전)



도 6-2 열암곡 석조여래좌상 앞면
(보수 후)



도 6-3 열암곡 석조여래좌상 좌측면
(보수 후)

蓮] 조각이 잘 남아있다(도 6).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은 대의나 양감, 비례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경의 불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자 역시 같은 의견인데 좀 더 면밀한 비교를 통해 다시 검토해보고자 한다. 통일신라 8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는 동안의 석불은 경주를 포함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은 편삼 위에 편단우견의 대의를 입은 착의법으로 왼쪽 어깨에서 반전된 옷주름, 양쪽으로 불룩해지기는 광배의 형태와 그

안에 飛雲 위 연화대좌에 앉아 있는 화불들의 조각과 당초문·보상화문·화염문 등의 문양이 특징이다.¹¹ 이와 같은 특징들은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8~9세기 불상과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여래상의 신체는 8세기 후반 작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이나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과 비교되는데 신체 비례는 다소 짧아졌으며 어깨와 가슴은 좀 더 당당해진 모습이다. 얼굴의 형태도 8세기 후반 작의 방향보다는 둥글어지는 등 변화가 느껴진다(삽도 1). 하지만 9세기 전반기 작품인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863년 작인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비교해 보면 둥글어진 얼굴, 짧아진 신체비례, 당당해진 어깨 표현 등에서 친연성을 찾을 수 있다(삽도 2).

〈삽도 1〉 8세기 불상과 신체 및 광배 비교



¹¹ 광배는 飛雲 위에 앉은 화불과 넝쿨문[唐草文], 寶相華文이 돌을새김 되었으며, 광배의 가장자리에는 음각의 불꽃문[火焰文]이 施文되었다. 거신광 안의 頭光은 보상화문을 연꽃 형태로 장엄한 것이다. 꽃받침은 큰 원 모양으로 양각하고 주위에 보상화문을 연편처럼 돌렸으며, 그 사이마다 花葉으로 추정되는 무늬를 두었다. 두광의 정상부 삼존불과 좌우에 독존불로 배치한 화불을 비롯하여 胴體의 양옆으로 조각된 2존씩을 더하면 모두 9존의 화불을 불신의 주위에 돌을새김 하였다. 화불은 마멸로 인하여 명확한 형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本像과 같이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비운 위 연화좌에 坐定한 것으로 보인다. 화불의 비운과 더불어 넝쿨문이 자연스럽게 연이어 도드라지게 양각되어 身光이 아울러 표현되면서, 광배 外緣의 모습대로 두광의 하부와 신광의 상부가 겹쳐진 보주형 불꽃 형상으로 불신을 감싸듯이 장엄하였다. 또한 대좌와 맞닿은 광배의 정면 하단에 연속적으로 장엄 도안된 추상적 꽃무늬도 특징적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보고서 (2010. 1.), p. 81

〈삽도 2〉 9세기 불상과 신체 및 광배 비교

		
<p>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p>	<p>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9세기 전반)(『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 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p. 15.)</p>	<p>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 (문화재청 제공)</p>

이러한 시기적 변화는 광배에서도 확인된다. 열암곡 여래상의 광배는 끝이 뾰족하게 높이 솟아 있고 하부로 내려갈수록 넓어져 여래상을 감싸는 모습이다. 그런데 8세기 후반 경의 작품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과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광배의 경우는 원형에 가까운 모습에 불상의 신체와 조화를 이루는 크기와 형태적 특징을 볼 수 있다. 반면, 9세기 대 작품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과 863년 작인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에는 광배의 끝이 뾰족하게 솟아오르고, 하부로 갈수록 넓게 퍼진 주형광배로 불상에 비해 과장되게 커지고 넓어져 여래상을 감싸 안은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삽도1, 2).

광배에 조각된 화불에서도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는데, 8세기 후반 작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과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광배의 화불은 연화대좌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모습인 반면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과 863년 작인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같은 형식에 구름을 타고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되었다(삽도 3). 이와 같은 화불의 변화는 광배의 형태와 크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광배의 화불은 불상이 갖고 있는 교학적인 의미나 상징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¹² 8세기 대에 비해 넓어진 광배에는 주불의 상징성을 설명하는 화불의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¹² 徐志敏, 『통일신라 비로자불상의 도상 연구 - 광배와 대좌에 보이는 중기밀교 요소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006. 12.), p. 61.

광배의 모습에 맞춰 위로 날아오르는 구름 위에 연화대좌에 앉아 항마촉지인 수인을 결한 화불은 본 불상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이 뾰족하게 솟은 광배 상단에 삼존상 화불을 표현함으로써 정점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래상의 광배에 표현된 화불의 수량은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에서부터 동

〈표 1〉 석조여래좌상 광배 화불 비교

불상명	광배 화불					제작시기
	총계	광배상단	머리 뒤	어깨 뒤	허리 뒤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	5구	1구	2구	2구	-	8세기 후반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7구	1구	2구	2구	2구	8세기 후반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	9구	3구	2구	2구	2구	9세기 초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1구	5구	2구	2구	2구	863년

〈삽도 3〉 광배 화불 비교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 광배 상단 화불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광배 상단 화불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 광배 상단 화불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광배 상단 화불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 광배 화불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광배 화불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 광배 화불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광배 화불

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갈수록 그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표 1). 또한 8세기 후반
 작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과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의 광배 상단에 표
 현된 화불이 1구인 것과는 다르게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과 863년 작인 동화사 비로암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의 광배 상단에는 3구와 5구의 화불로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삽도 3). 따라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작품으로 갈수록 광배의 크기가 크고 넓어지며 끝이 뾰족하게 솟아오르
 는 등, 광배의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 넓고 높아진 광배에는 주 불상의 성격과 상징성을 설명하
 는 화불 등의 표현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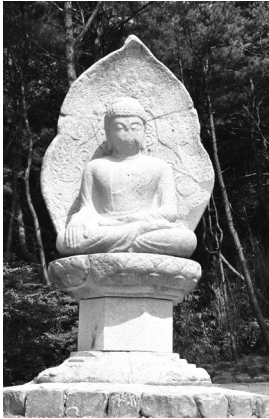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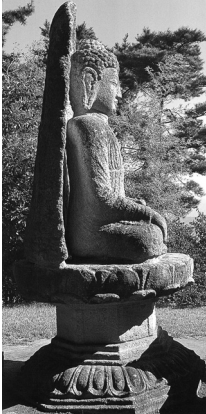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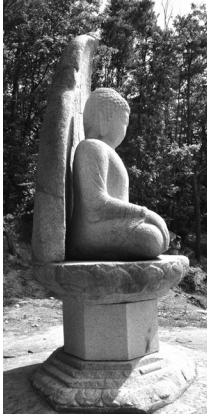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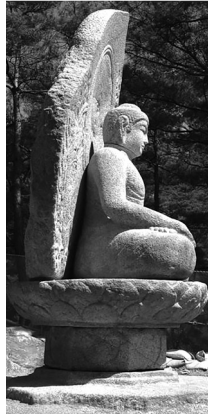
마지막은 대좌에 표현된 연꽃잎의 변화이다. 이 중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과 가장 비교

〈삽도 4〉 대좌 비교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 여래좌상 대좌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 좌상 대좌	열암곡 석조여래좌상 대좌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 여래 좌상 대좌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 여래좌상 대좌 상대석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 좌상 대좌 상대석	열암곡 석조여래좌상 대좌 상대석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 좌상 대좌 상대석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 여래좌상 대좌 하대석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 좌상 대좌 하대석	열암곡 석조여래좌상 대좌 하대석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 좌상 대좌 하대석

가 되는 작품은 8세기 후반 작인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과 9세기 전반기 작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이다. 불상 대좌의 상대석과 하대석에 표현된 연꽃을 비교할 수 있는데, 먼저 대좌 상대석의 경우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이나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대좌 상대석의 올림연꽃은 통통하면서도 길쭉한 모습에 중앙 능선이 있는 연꽃잎을 2단으로 표현한 반면, 열암곡 석조여래좌상과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의 대좌 상대석의 올림연꽃은 둥글면서 끝이 뾰족한 연꽃잎에 꽃 수술을 표현한 3단 연꽃잎으로 조각하였다. 그리고

〈삽도 5〉 불상 비교

		
		
<p>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높이 266cm, 보물 136호, 8세기 후반(문화재청 제공)</p>	<p>열암곡 석조여래좌상</p>	<p>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높이 291.3cm, 보물 666호, 9세기 전반(『경주남산 삼릉계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p. 15, 21.)</p>

하대석의 경우,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이나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대좌 하대석의 내림연꽃의 표현은 통통하면서도 가늘고 긴 複瓣 연꽃잎으로 조각하였다. 하지만,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의 대좌 하대석의 내림연꽃은 넓고 둥근 단판 연잎으로 표현된 것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의 대좌에 표현된 연꽃잎은 8세기 대 작품에 비해 단순해졌지만, 대좌 상대의 연꽃 표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연꽃잎에 수술을 표현하는 등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삽도 4).

이상과 같이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의 불상, 광배, 대좌 등의 특징을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후반 경의 작품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둥근 얼굴, 짧고 잘록해진 허리에 강조된 가슴과 당당해진 어깨, 높아진 무릎 등의 불상표현, 불상을 감싸는 듯한 넓고 커진 광배, 단순하면서도 장식성이 가미된 대좌 상·하대석의 연꽃 표현 등에서 8세기 후반 작품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9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과의 비교를 통해 신체균형, 옷주름 표현, 광배의 화염문 등에서 좀 더 세밀하고 세련된 표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제작시기는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다 앞선 9세기 초반 작으로 생각된다(삽도 5).

2. 마애여래입상

열암곡사지 마애석조여래입상은 2007년 석조여래좌상 주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석조여래좌상에서 남동쪽으로 약 30m 거리, 30°정도 경사진 산 사면에 마애불상이 새겨진 면이 바닥으로 향한 채 앞으로 넘어져 있었다.¹³ 마애여래입상이 위치한 곳은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과 같은 능선에 연결되어 있는 선상에 있고 건물지 축대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열암곡사지 사역 내에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모셔졌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마애여래입상이 위치한 곳은 산 사면과 露頭¹⁵가 발달되어 있는데 원래는 노두에 얹혀 있던 것이 후대에 외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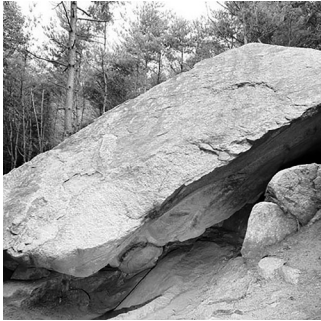
¹³ 열암곡 마애여래입상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779년에 경주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과 연관된다는 의견도 있다. 진광민·이민정·김영석, 앞의 논문(2009), pp. 236-237.

¹⁴ 발굴조사단이 조사지역 바깥에 해당하는 이곳에서 마애불상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석불좌상의 축대 아래쪽에서 석불좌상이 위치한 축대 상부로 출입하던 당시 動線이 불분명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축대를 중심으로 주변을 면밀히 살피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보고서(2010. 1.), p. 51.

¹⁵ 바윗돌이 지표면에 드러난 부분을 말한다.

어떠한 충격으로 넘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⁶ 마에여래입상은 화강암(약 250×190×620cm, 무게 약 80톤) 한 면에 높은 돌을새김[高浮彫]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래상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460cm, 연화대좌가 100cm로 전체 높이가 560cm에 이르는 대형 마애불인데, 현재 여래상의 머리 위쪽 끝 부분과 허벅지 부분만 암반과 돌덩이에 닿아 여래상을 지탱하고 있다(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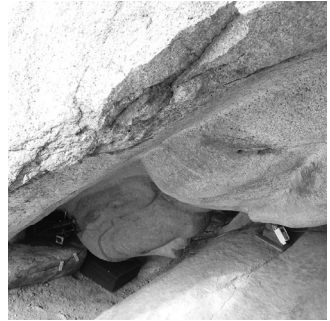
마에여래입상은 앞으로 넘어진 채, 안전을 위해 임시 보호각 안에 있어서 전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의 3D스캔과 도면을 이용해 살펴보고자 한다.¹⁷ 마에여래입상은 올림 연꽃 대좌 위에 양쪽 발끝을 밖으로 향해서 있는데, 사각에 가까운 얼굴에 왼손은 왼쪽 가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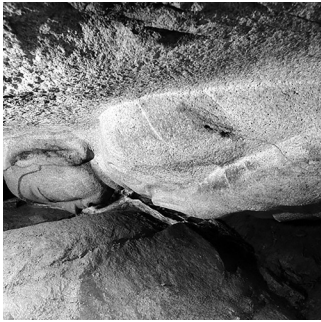
도 7-1 열암곡 마에여래입상 발견 당시 전경(『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 p. 28.)



도 7-2 열암곡 마에여래입상 보호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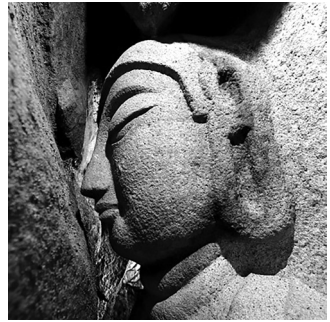
도 7-3 보호각 사이로 보이는 마에여래입상



도 7-4 암반에 닿아 있는 여래상의 머리(『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 p. 28.)



도 7-5 암반에 닿아 있는 허벅지(『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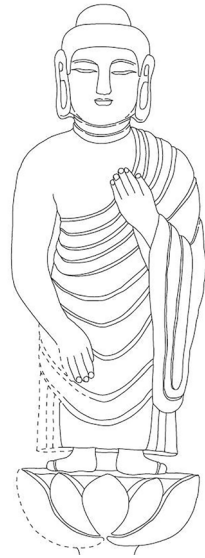
도 7-6 여래상의 얼굴(『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 p. 27.)

¹⁶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보고서 (2010. 1.), p. 51.

¹⁷ 현재 열암곡 마에여래입상이 앞으로 넘어진 상태이므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



도 8-1 열암곡 마애여래입상 3D 스캔 모델링, 높이 560cm (불상 460cm, 연화대좌 100cm) (『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 p. 32.)



도 8-2 열암곡마애여래입상 스케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명희 연구원) (『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 p. 33.)

에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 위로 내렸다. 편단우견의 대의를 걸치고 있으며, 대의의 옷주름은 허리 부분에서 촘촘하게 겹쳐졌다가 허리 아래로 부터는 U자형 옷주름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8).

사실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과 정확하게 비교되는 작품은 찾기 어렵다. 다만 801년 작인 경남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상 본존상의 봉긋이 솟아 있는 육계와 사각에 가까운 얼굴, 단판 연꽃잎으로 이루어진 올림연꽃 대좌 위에 양쪽 발끝을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등에서 친연성을 찾아 볼 수 있다(삽도 6). 그리고 9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본존입상의 경우, 좌우는 바뀌었지만 손의 위치라든지 편단우견 대의 착의법과 옷주름 등에서 비교된다. 따라서 열암곡 마애여래입상의 제작 시기는 9세기 전반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삽도 7).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의 특징은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아랫배 아래쪽으로 내린 수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의 불상들을 일반적으로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으로 부

좌상 보수·정비 보고서와『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도록의 3D 스캔 모델링과 자료를 참조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삽도 6〉 여래상의 얼굴과 대좌 비교

			
<p>경남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상 중 본존상 얼굴</p>	<p>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 얼굴</p>	<p>경남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상 중 본존상 대좌</p>	<p>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 대좌</p>

〈삽도 7〉 여래상 비교

		
<p>경남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상 중 본존상, 350cm, 보물 159호, 801년 (조원영 선생 제공)</p>	<p>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 스케치</p>	<p>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본존불, 317cm, 경북유형문화재 21호, 9세기 전반 (『경주남산』, p. 105.)</p>

르기도 한다.¹⁸ 왕정골 석불입상은 통견의 대의를 착의하고 오른손은 오른쪽 가슴에 왼손은 아랫배 쪽에 내린 것이 특징으로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의 편단우견의 대의와 손의 좌우가 바뀐 점을 제외하면 같은 유형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도 9).

이와 같은 이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과 비교하여 존명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왕정골 석불입상은 통견의 대의에 가는 허리 그리고 특히, 가슴에서 흘러내린 옷주름은 허리 부분에서 반원형의 주름으로 바뀌면서 반복적으로 흘러내린 옷주름이 특징이다. 또한 수인의 경우 중지를 안쪽으로 구부려 엄지와 결합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형의 상으로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왕정골 석불입상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 전웅수사지 출토 석불입상, 경주 황룡골 출토 석불입상¹⁹, 경북 상주 함창읍 증촌리 석불입상,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선각여래입상, 열암곡 마애여래입상 등 7점의 사례가 있다.²⁰

이 불상들의 공통점으로는 왕정골 석불입상과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선각여래입상의 경우 손의 좌우가 바뀌었지만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아랫배 쪽으로 내렸으며, 손을 구부린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선각여래입상과 양손을 편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점 불상들의 가슴에 올린 손은 엄지와 검지 또는 중지를 결합 모습을 취하고 있다.²¹ 또한 허리는 잘록하게 표현하였고, 가슴에서 내려오는 옷주름이



도 9 경주 남산 왕정골 석불입상, 높이 200cm(국립중앙박물관 제공)

¹⁸ 김리나, 「慶州 왕정골 石造 佛立像과 그 類型」, 『有光敎一先生白壽記念論叢』(財團法人高麗美術館, 2006), pp. 300-301.

¹⁹ 이 상은 경주에서 감포로 가는 길의 북쪽 계곡 산길에 절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황룡사라는 절터에서 옮겨온 것인데 1992년 그 절터에 대한 보고서에는 석조 쌍탑의 부재가 알려졌다고 하였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연보』 제3호 (1992), pp. 147-173 ; 김원주, 「황룡골(黃龍谷) 이야기」, 『穿古』통권 제 56호 (신라문화동인회, 1993), pp. 131-132.

²⁰ 김리나, 앞의 논문 (2006). ; 이 논문에서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여래입상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²¹ 7점의 여래상 중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여래입상, 열암곡 마애여래입상, 상주 증촌리 석불입상의 오른손은 아랫배 아래로 내려져 있다.

허리에서 한번 모였다가 다시 반원형으로 흘러 내려가는 모습이다.²² 차이점으로는 황룡굴 출토 석불입상,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선각여래입상,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의 경우 편단우견의 대의를 착용한 점이다(삽도 8).

〈삽도 8〉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의 여래상 비교와 기존 편년

			
<p>경주 남산 왕정골 출토 석조불입상, 7세기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제공)</p>	<p>경주 토함산 응수사지 출토 석불입상, 7세기 말 ~ 8세기 초 (국립경주박물관 제공)</p>	<p>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 7세기 말 ~ 8세기 초 (동국대학교 박물관 제공)</p>	<p>경주 토함산 황룡굴 출토 석불입상, 7세기 말 ~ 8세기 초 (국립경주박물관 제공)</p>
			
<p>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석불입상, 8세기 말 ~ 9세기 초 (문화재청 제공)</p>	<p>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선각여래입상, 9세기 초</p>	<p>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여래입상, 9세기 전반</p>	

²² 김리나 선생은 왕정골 불입상 유형의 불입상들의 다리 위에 늘어진 옷주름선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이상이 새로운 도상의 수용에서 입체적인 조각상으로의 전환이 서툴렀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김리나, 앞의 논문 (2006), p. 300.

이 유형의 여래상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경주 남산 왕정골 석불입상은 7세기 후반, 전 응수사지 석불입상·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경주 황룡골 석불입상은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상주 증촌리 석불입상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여래입상과 열암곡 마애여래입상은 9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왕정골 석불입상을 7세기 후반으로 보는 이유는 조각의 미숙함에서 나오는 불규칙한 옷주름, 부자연스럽게 몸에 붙어 있는 손의 모습, 간략화된 광배 화염문의 표현과 통통하면서도 童顔인 듯한 신선한 얼굴 모습 등에 의한 해석이다.²³

그러나 왕정골 석불입상의 가슴과 허리 이하의 불규칙적인 옷주름 표현은 조각적 미숙함보다는 허리를 강조하는 인체표현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규칙한 옷주름의 모습은 706년 작인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출토 금제 아미타불좌상의 옷주름과 비교된다(도 10). 그리고 방형의 얼굴 모습은 8세기 중엽 작인 경주 남산 샷갓곡 석조여래입상과 비교가 되는데 얼굴의 턱선이라든가 입술, 코, 눈썹의 세부표현에서 친연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샷갓곡 여래상의 얼굴과 비교하면 왕정골 석불입상의 제작 시기는 좀 더 앞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왕정골 석불입상의 제작 시기는 8세기 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삽도 9). 그렇다면 왕정골 석불입상의 유형에 속하는 동국대학교 석불입상 역시 비슷한 8세기 전반기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 10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출토 금제 아미타여래좌상, 12cm, 706년(국립경주박물관 제공)

〈삽도 9〉 여래상의 얼굴 비교



²³ 왕정골 석불입상의 제작시기와 이 유형의 불상에 대해서는 김리나,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97), pp. 76-78 ; 김리나, 앞의 논문 (2006) 참조

광배의 문양이나 옷주름에서 변화를 볼 수 있는 전웅수사지 석불입상, 황룡골 출토 석불입상은 이 보다 다소 늦은 시기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 불상의 제작 시기를 다시 정리하면 왕정골 석불입상,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 전웅수사지 석불입상, 황룡골 석불입상은 8세기 대 작품이며,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서면 선각여래입상,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 상주 증촌리 석불입상은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9세기 대의 작품인 경주 남산 약수계 마애여래입상도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편단우견 대의에 편삼을 걸친 모습이지만 양손의 위치라든가 가슴 위에 올린 손의 엄지와 중지를 결한 모습에서 같은 계통의 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삽도 10).

〈삽도 10〉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의 여래상 제작시기 재편년

			
경주 남산 왕정골 출토 석조불입상, 8세기 전반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 8세기 전반	경주 토함산 웅수사지 출토 석불입상, 8세기 후반	경주 토함산 황룡골 출토 석불입상, 8세기 후반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선각여래입상, 9세기 초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여래입상, 9세기 전반	경주 남산 약수계 마애여래입상, 9세기 전반 (『경주남산』, p. 154.)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석불입상, 9세기 중반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은 편단우견의 대의 착용이 특징인데, 이러한 착의법은 황룡골 석불입상에서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선각여래입상,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 그리고 경주 남산 약수계 마애여래입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을 비롯한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 불상의 존명에 대한 문제인데 확실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유형 불상들의 수인을 보면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아랫배 쪽으로 내렸다. 그리고 삼릉계 선각육존불 서면 선각여래입상을 제외하면 모두 엄지와 검지 또는 중지를 결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삽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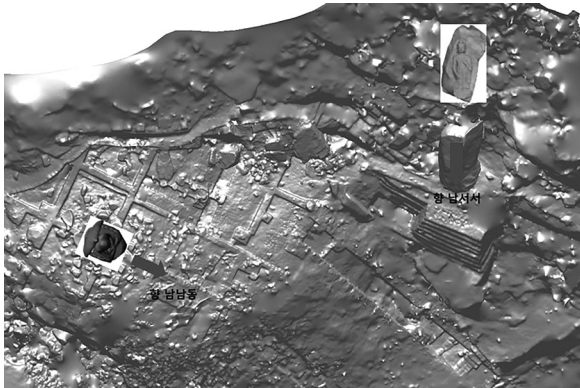
〈삽도 11〉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의 여래상 수인 비교

		
경주 남산 왕정골 출토 석조불입상 수인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 수인	경주 토함산 응수사지 출토 석불입상 수인
		
경주 황룡골 출토 석불입상 수인	경북 상주 증촌리 석불입상 수인	경주 남산 약수계 선각여래입상 수인

이러한 수인은 720년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에서 볼 수 있고,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 좌상 역시 엄지와 중지를 결한 아미타여래상이며, 9세기 전반기 작인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

〈삽도 12〉 통일신라시대 아미타여래상 수인 비교

<p>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수인, 720년</p>	<p>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수인, 8세기 후반</p>	<p>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동면 선각여래좌상 수인, 9세기 초</p>



도 11 열암곡사지 여래상 위치도(『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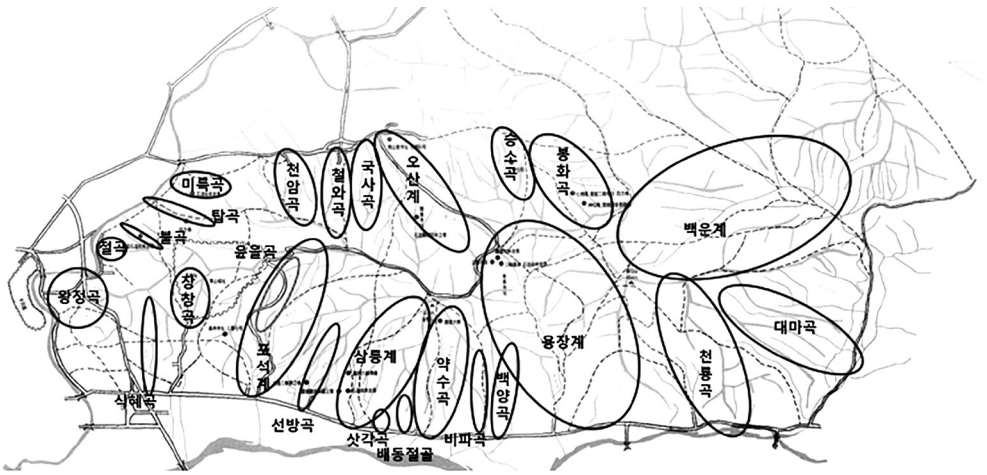
존불 중 동면 선각여래좌상 역시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있다. 그런데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은 엄지와 검지를 완전히 결하고 약지를 구부린 반면,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과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동면 선각여래좌상의 중지는 엄지를 향해 살짝 구부린 모습이다.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결한 모습은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 불상들의 수인과의 비교가 된다. 이러한 것에

서 볼 때, 엄지와 검지 또는 중지를 결한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 불상들의 수인은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동면 선각여래좌상과 같은 유형의 아미타여래상의 구품인으로 생각된다(삽도 12).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이 위치한 방향도 참고가 된다. 열암곡사지의 주존불인 석조여래좌상은 사찰의 가람배치와 일치하는 남남동 방향인데 반해(도 11), 마애여래입상은 남서서 방향이다. 따라서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의 작품 중 손의 모습이 다른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선각여래입상을 제외한 7점의 작품들은 수인의 모습이나 그 방향에서 아미타여래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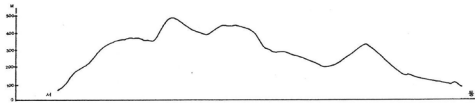
Ⅲ. 열암곡사지 석조불상의 조각사적 의의

경주 남산²⁴은 남북의 길이가 약 8km, 동서 폭은 4km, 총면적이 약 30km²이며 63곳의 크고 작은 계곡과 180여개의 대소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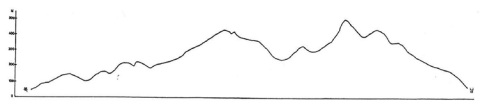


도 12 경주 남산 지도

그런데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경주 남산의 동서 횡단면을 보면 서쪽면이 동쪽면에 비해 경사가 급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도 13-1). 그리고 남북간의 횡단면을 보면, 왕경의 중심인 月城에서 시작되는 북쪽면에서 완만하게 시작해 금오산에서 높아졌다가 중앙부는 약간 낮아지고 다시 고위산에서 높아지는 형태를 거쳐 남쪽 사면은 북쪽에 비해 급한 경사를 이룸에 따라(도 13-2) 경주 남산은 서고동저, 남고북저의 형태이다.²⁵



도 13-1 경주 남산 동서 횡단면도(『特別展 慶州南山』, p. 94)



도 13-2 경주 남산 남북 횡단면도(『特別展 慶州南山』, p.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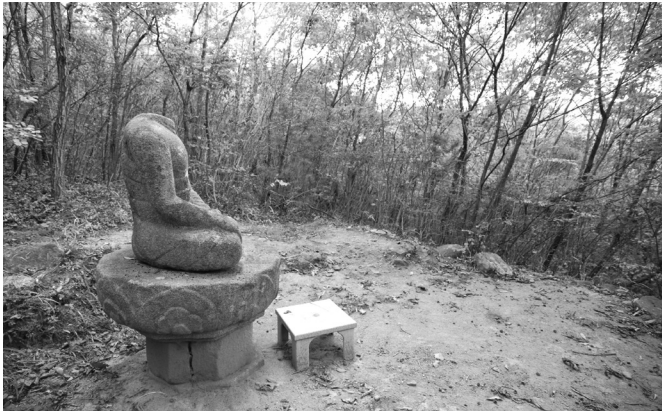
²⁴ 경주 남산은 金鰲山(높이 468m)과 高位山(높이 494m)을 비롯한 대소 봉우리를 합쳐 부른다.

²⁵ 丁源一·林元炫, 『南산의 自然環境』, 『特別展 慶州南山』(國立慶州博物館, 1995), p.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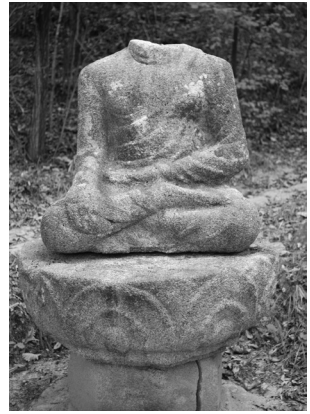


도 14 백운계 지류에 위치한 폐사지

즉, 경주 남산의 지형적 구조는 북쪽과 동쪽이 완만한 구릉으로 형성된 반면 서쪽과 남쪽은 급한 경사의 구릉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남동쪽 끝단의 白雲溪에는²⁶ 열암곡을 비롯해 백운곡, 양조암곡, 심수곡에 각각의 절터가 있다(도 14).²⁷ 현재 심수곡에는 목이 결실된 석조여래좌상(도 15), 양조암곡에는 여래상의 상반신·하



도 15-1 심수곡사지 전경(문화재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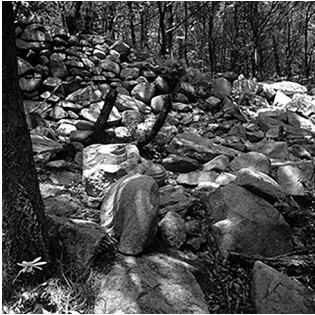


도 15-2 심수곡사지 석조여래좌상(문화재청 제공)

²⁶ 백운대마을에서 북쪽으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 2.7km 오르면 白雲庵이라는 절이 있다. 이곳에서 발원한 백운계는 상류로부터 심수곡, 양조암곡, 열암곡(새가곡)이 합류되어 백운대마을로 내려온다. 신라시대 백운사라는 절의 이름을 따서 백운대 혹은 백운곡이라고 불려진다. 지금의 백운암에는 남산에서 가장 큰 축대가 남아 있고, 최정상인 고위산 바로 아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남산- 본문·해설편』(2002), p. 100)

²⁷ 백운곡사지가 있는 백운곡은 백운계 계곡에서 가장 크고 긴 계곡으로 계곡의 끝에는 백운암이 있으며, 이곳에서 고위산과 천룡사지, 백운계를 거쳐 용장계곡으로도 갈 수 있다. 이곳 백운곡의 중턱에서부터 제1·제2·제3사지가 있는데 3곳의 절터를 포함해서 백운곡사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 중 제3사지는 백운계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래에 세워진 조그만 암자가 있고 암자의 앞쪽에는 대형 축대가 남아있다. 현존하는 축대의 규모는 높이 5.3m, 전체 길이 19.5m에 달한다. 심수곡은 칠불암 정상의 봉화대 쪽에서 흘러오는 지류로 계곡은 깊은 편인데 돌틈에서 물이 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심수곡사지는 계곡 입구에서 약 500m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石水庵이라고도 부른다. 절터의 축대는 아래에 있고 축대 위쪽에는 석조여래좌상이 놓여 있다. 양조암곡사지는 열암곡사지와 심수곡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옛날에 양재암 혹은 양조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하여 양

반신·광배편들이 남아있다(도 16). 이 불상들은 열암곡 석조여래좌상과 비교하면 짧은 신체 비례, 편단우견의 대의 착의법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당당한 신체가 특징인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과는 달리 단순화되고 간략해진 대의 옷주름, 대좌, 화염문 표현 등에서 열암곡사지 여래상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백운계 불상들은 열암곡이 만들어진 다음 또 다른 가람들이 연이어 배치되는 등, 남산의 불적 가운데 9세기 대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 16-1 양조암곡사지 전경(문화재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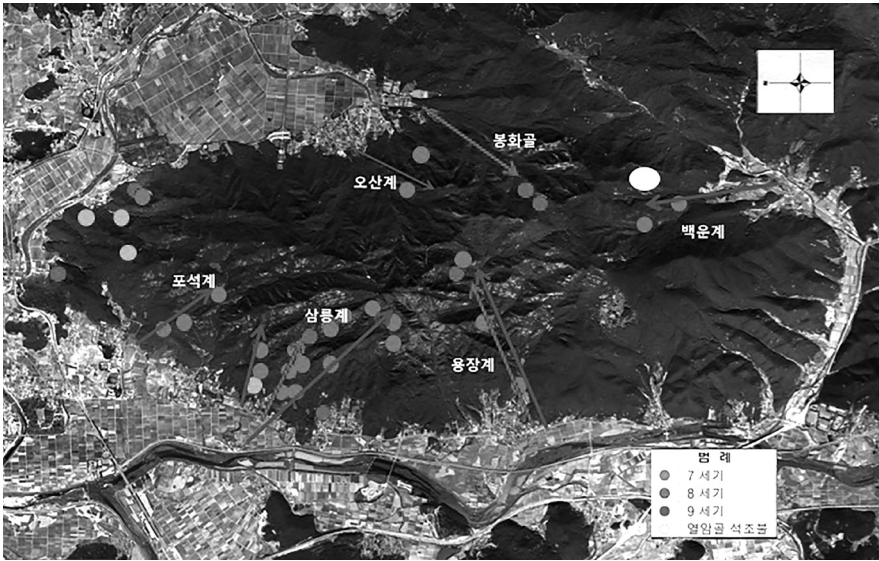
도 16-2 양조암곡사지 석조불상(문화재청 제공)



도 16-3 양조암곡사지 광배편(문화재청 제공)

경주 남산의 7세기와 8세기의 불적들은 완만한 구릉이 형성된 북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9세기에는 그 동안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백운계를 중심으로 가람들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백운계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중심 지역이었던 동·북쪽 지역을 비롯해 서쪽의 삼릉계, 포석계, 약수곡 등지에서도 나타난다. 즉 9세기의 남산은 보다 넓은 지역에서 불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열암곡을 포함한 백운계는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으로 인해 낮은 구릉으로 형성된 북·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개착된 것으로 생각된다(도 17).

조암곡 혹은 양재암곡이라 부르고 있다. 양조암곡은 백운계 입구에서 바라보면 하얀 화강암들이 줄지어 있어서 줄바위라고도 부르며 4곳의 절터가 있다. 줄바위 아래 절터라고 알려진 제1사지에는 불상과 광배, 대좌가 파손되어 흩어져 있고, 불상은 가슴 아래 부분만 남아 있고 주변에는 광배편과 대좌편이 남아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2), pp. 10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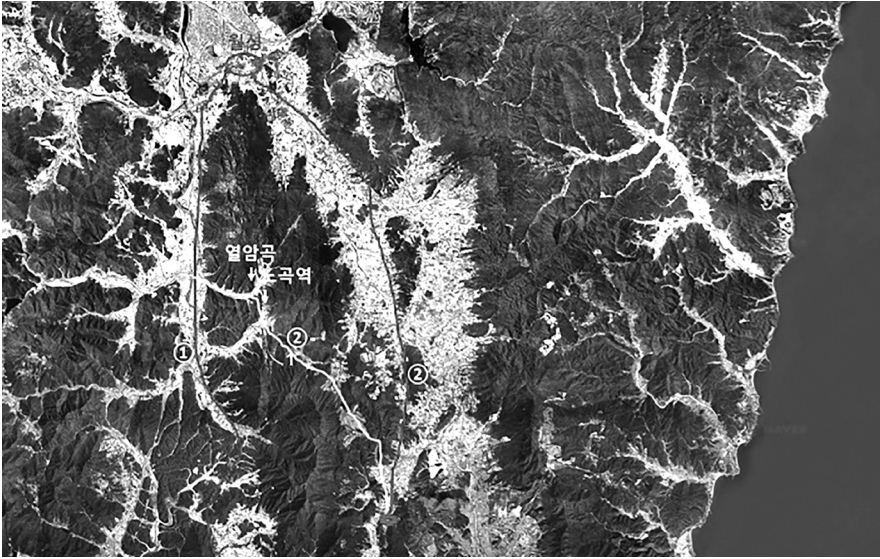


도 17 7세기 ~ 9세기 대 경주 남산 석조물상 분포도

이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왕경의 중심인 월성으로 연결되는 외곽 교통로와 성곽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²⁸ 왕경과 연결된 외곽 교통로 중 남쪽의 울산과 연결된 교통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성에서 경주시 사정동 남천변 - 경주시 탐동 오릉의 崇德殿 남서쪽 -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 울산시 두서면 전읍리로 이어지는 ①번 남쪽 노선으로 현재 35번 국도 변이다. 그리고 월성에서 경주시 도지동 원마을 -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 원골 -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덕방마을 -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 관문성으로 연결되는 ②번 동남쪽 노선인 현재 7번 국도 변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⁹ 이 중 ①번 남쪽 노선은 경주 남산의 서쪽 및 남쪽 구릉과 관련된 교통로로 생각된다. 그리고 관문성 -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 경주시 외동읍 지내리 -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 경주시 내남면 - 노곡리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로 연결

²⁸ 신라의 왕경의 중심지인 月城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는 동쪽의 明活山城이 있는 지역은 양북면 해변과 포항시 迎日 烏川 지역과 통하는 길목이 되고 서쪽의 西兪山城과 富山城은 산내면과 건천읍쪽에서 오는 길목이 되었다. 남쪽의 南山新城·都堂山土城·南山土城은 내남면과 외동읍·불국사 방향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남동쪽의 毛伐郡城은 2개 소의 門地가 있어 官道의 노선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朴方龍, 「新羅 都城의 交通路」, 『경주사학』 16 (1997), p. 189.

²⁹ 신라 왕경의 교통로에 대해서는 박방룡, 앞의 논문 (1997), pp. 186-195. 참조.



도 18 왕경과 남쪽 및 동남쪽 교통로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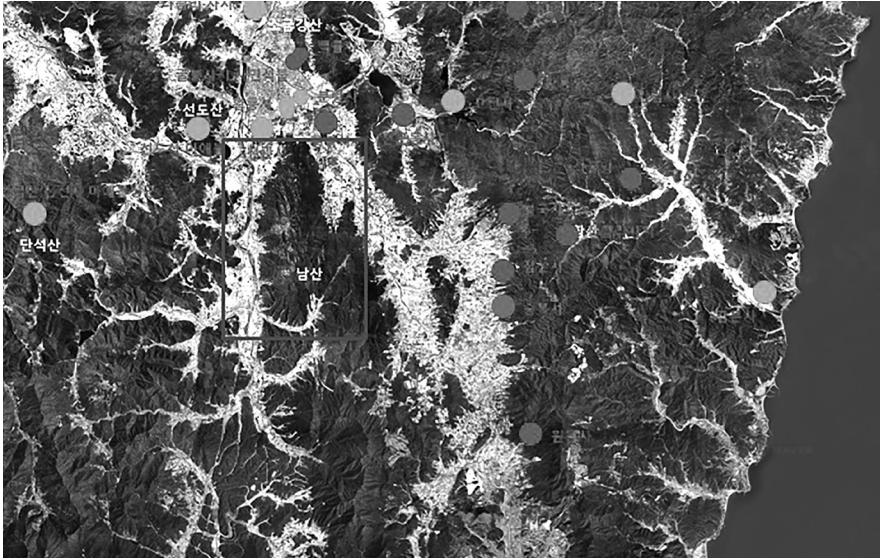
되는 ②-1의 간선인 현재 904번 지방도 변과 연결할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도 사용하였던 驛 중 奴谷驛의³⁰ 존재로 추정할 수 있다.³¹ 노곡역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경주시 내 남면 노곡리로서 열암곡사지가 있는 백운계가 위치한 행정구역과 같은 점, 그리고 현재 임실치즈마을 경주체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곡역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과의 직선 거리는 약 1.7km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열암곡사지는 경주 남쪽의 울산 지역에서 신라 왕경인 월성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고대 사찰의 건립 위치와 교통로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경주 남산의 동남쪽 끝단인 백운계에 열암곡사지와 같은 사찰이 건립될 수 있는 것이다(도 18).

다음은 통일신라시대 불사와의 관련성이다. 통일신라 9세기 대 경주 지역은 남산을 제외하

³⁰ '慶州道, 掌二十三, 活里, 牟梁, 阿弗, 知里, 奴谷, 仍巴, 仇於旦, (慶州)... 安康驛, 仁比(杞溪)...' 『高麗史』 卷36, 兵 2 站驛條; '驛十一, 仇於, 朝驛路, 奴谷, 毛良(古作 牟良), 阿火(古作 阿弗), 沙里(古作 活里), 仍浦(古作 仍巴), 義谷(古作 知里), 己上境內, 鏡驛(在安康), 仁庇(在杞溪), 六驛(在神光)'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驛條.

³¹ 역의 체제는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용되었는데, 奴谷驛의 현재 행정지역은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노곡초등학교 앞 역관터이다.(박방룡, 앞의 논문(1997), p. 191.); 현재 노곡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었고, 그 자리는 임실치즈학교 경주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³² 박방룡, 앞의 논문(p.194)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②-1 노선은 본 연구자의 의견이다.



도 19 7세기 ~ 9세기 대 경주 지역 사찰 건립 현황 분포도

면 큰 불사는 매우 적은 편이다. 8세기 말 불국사를 끝으로 대규모 가람 건립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19), 이는 애장왕 7년인 806년에 새로운 사찰 건립 금지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³³

애장왕 대의 새로운 사찰 건립 금지는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정치적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대 말기부터 중앙의 귀족들은 불교와 결탁해 종교적·정치적 세력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신라 하대의 새로운 정권은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통제책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기존 정치세력의 통제책으로 내세운 새로운 사찰 건립 금지령에 대한 불교계 반발의 회유로 고승들의 塑造像 造成과 追慕碑 建立 등 高僧追慕活動을 유도하고 장려하였다. 이렇게 신라 하대의 새로운 정권은 사찰 건립 금지령 등과 같은 불교 정책이 불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계승하고자 하는 호법활동임을 알리고, 신라왕들은 호법국왕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불교계의 통제와 지지를 통해 정권 안정을 추구하였다.³⁴ 그러나 신라 하대의 왕위 찬탈과 왕권 불

³³ '七年, 春三月, 下敎, 禁新創佛寺, 唯許修葺, 又禁以錦繡爲佛寺, 金銀爲器用, 宜令所司, 普告施行...'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0, 〈애장왕〉

³⁴ 郭丞勳, 「下代 前期 新政權의 佛教政策과 佛教界의 動向」, 『統一新羅時代의 政治活動과 佛教』 (국학자료원, 2002), pp. 174-176.

안정으로 인해 왕위계승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신라는 불교의 힘에 의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 일련의 불교 호법활동 중의 하나가 경주 남산의 소규모 사찰 건립과 석조불상의 조성이라고 생각된다.

신라 하대 초기에는 왕위 찬탈 등 왕권의 불안정은 있었지만 진성여왕 2년(888)까지는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³⁵ 이러한 정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데 신라 하대 왕들에게 현상된 瑞祥物에 대한 기록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표 2). 신라의 여러 지역과 귀족들에 의해 붉은 까마귀, 흰 꿩, 흰 까치 등의 서상물을 바쳤다는 기록은 원성왕 대인 758년부터 헌덕왕 대인 825년에 이르기까지 약 14회 정도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이 중 원성왕 원년(785년), 소성왕 원년(799년)에 현상된 기록은 왕의 즉위와 관련되고, 이런 현상은 애장왕과 헌덕왕 대에도 이어진다. 특히, 헌덕왕 17년인 825년은 김헌창의 난이 진압된 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신라 하대 왕들에게 서상물을 바치는 상황은 왕권의 강화나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통해 중앙집권적 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진 것으로 추정된다.³⁶

〈표 2〉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신라 하대 서상물의 기록

재위 왕	서상물 기록
원성왕 (785~798)	· 원성왕 원년(785) : 패강진에서 붉은 까마귀 · 원성왕 6년(790) : 용천주에서 붉은 까마귀 · 원성왕 9년(793) : 나마 김뇌가 흰 꿩 · 원성왕 10년(794) : 한산주에서 흰 새
소성왕 (799)	· 소성왕 원년(799) : 냉정현령 염철이 흰 사슴 · 소성왕 원년(799) : 한산주에서 흰 새
애장왕 (800~808)	· 애장왕 2년(801) : 무진주에서 붉은 까마귀 우두주에서 흰 꿩 · 애장왕 3년(802) : 삼량주에서 붉은 까마귀 · 애장왕 5년(804) : 삼량주에서 흰 까치
헌덕왕 (809~825)	· 헌덕왕 2년(810) : 하서주에서 붉은 까마귀 서원경에서 흰 꿩 · 헌덕왕 17년(825) : 삼량주에서 흰 새
현강왕 (875~885)	· 현강왕 6년(880) : 용주에서 아름다운 벼

³⁵ 권오영, 「신라 하대 중기(839-888) 왕위 계승과 정국의 안정」, 『지역과 사회』 24 (부경역사연구소, 2009), pp. 182-183.

³⁶ 신정훈, 「新羅 下代의 瑞祥이 가진 정치적 의미」, 『東洋學』 제8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pp. 10-13.



도 20 9세기 대 경주 남산 대형 마애불 조성 현황

신라 하대 새로운 정권은 왕권강화나 체재 유지를 위해 불교계의 지지를 받기 위한 불사 역시 필요했을 것이지만, 806년 새로운 사찰 건립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왕경보다는 지방 중심으로, 경주 왕경보다는 남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사례로는 802년 해인사 창건과 5m가 넘는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보물 제222호)의 제작을 들 수 있다.³⁷ 해인사는 신라 하대 왕실이 지방에 세운 최초의 사찰로 신라 하대 말기까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곳이기도 하다.³⁸ 그리고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이 조성된 가야산 중턱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법수사에서부터 해인사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점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사지 석조불상과 비교된다. 경주 남산의 경우에도 높이 560cm의 거대한 장육존상인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 860cm의 약수계 마애여래입상, 521cm의 삼릉계 상선암 마애여래좌상, 삼릉계 제6사지 선각 마애불 등 대형 마애불이 조성되었다(도 20). 경주 남산의 5m 이상 되는 9세기 대의 불상들은 신

³⁷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은 가야산 중턱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수도·수행을 강조하는 불상일 가능성과 임종 시 존상을 우러러 견본의 뜻을 반영하여 직접 내영하는 모습을 나타낸 입상의 아미타상으로 제작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지강이, 『신라하대 합천 치인리 마애불입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4호 (2012), pp. 47-48.) 그런데 해인사의 창건 성격과 여래상의 크기와 위치를 볼 때 왕권과 관련된 정치적 성격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³⁸ 지강이, 앞의 논문, pp. 44-45.

라 하대 전기에 제작된 석불 가운데 가장 거대한 크기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 새로운 정권의 왕권강화를 위한 불교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국제항이 있었던 울산 지역에서 경주의 신라 왕경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선상에 위치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아마도 일반인에 의한 제작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 불상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열암곡사지의 두 불상인 석조여래좌상과 마애여래입상에 대한 특징과 양식적 검토를 통해 제작시기를 유추하였다. 이 과정에서 열암곡 마애여래입상이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의 불상으로 분류하여 그 유형에 속하는 왕정골 불입상 유형의 불입상에 대한 제작시기를 재검토하고, 수인의 모습과 그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존명을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당시 정치·사회사적인 배경을 통해 열암곡사지 석조불상의 조성 배경도 살펴보았다.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은 8세기 후반의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과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9세기 전반기의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863년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불상은 물론 광배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제작 시기는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다 앞선 9세기 초반 상으로 추정하였다.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 역시 801년 작인 경남 함안 마애약사여래삼존상 중 본존상과 친연성이 있으며, 9세기 전반 작인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본존입상 얼굴, 대의 착의법과 옷주름 등과 비교하여 9세기 전반기의 불상임을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 마애여래상은 독특한 수인과 대의 옷주름의 표현에서 왕정골 석불입상의 유형에 포함된다. 같은 유형의 불상으로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남산 왕정골 석불입상,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 전웅수사지 출토 석불입상, 경주 황룡골 출토 석불입상, 경북 상주 합창읍 증촌리 석불입상,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선각여래입상, 경주 남산 약수계 마애여래입상,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8점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 유형의 불상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기준과 다른 편년을 제시해 보았다. 즉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 불상은 왕정골 석불입상,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 전웅수사지 석불입상, 황룡골 석불입상은 8세기의 작품이며,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선각여래입상, 경주 남산 약수계 석불입상,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 상주 증촌리 석불입상은 9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재편년하였다. 그리고 이 불상들은 엄지와 검지 또는 중지를 결한 수인의 모습이라

든가 방향에서 볼 때 아미타여래의 수인인 구품인의 또 다른 유형일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주 남산 열암곡사지 사역 내 두 불상인 석조여래좌상과 마애여래입상의 성격은 석가여래와 아미타여래일 가능성이 있으며, 성격이 다른 두 작품이 같은 사역 내 모셨던 것은 당시의 불교사상과 사찰의 가람배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사상적인 면은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찰 가람배치의 변화는 경주 불국사와 같이 불국사 삼층석탑과 다보탑이 있는 본 사원의 구역과 비로전, 미타전 등이 있는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가람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열암곡사지가 있는 지역은 경주 남산 남동쪽 끝단의 백운계로 열암곡사지 외에도 양조암곡사지, 심수곡사지, 백운곡사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남산 불적 가운데 9세기대 유적들이 집중으로 분포된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즉 8세기 대까지 남산의 불사 중심은 완만한 구릉이 형성된 북·동쪽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9세기 대에 들어서면서 급경사로 이루어진 백운계를 비롯한 남·서쪽에서도 불사가 활발히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주 남산의 지형적인 이유와 더불어 정치·사회적 배경과도 연계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열암곡사지가 있는 백운계와 서쪽의 삼릉계는 경주 남쪽의 울산지역에서 신라 왕경인 월성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사찰의 건립 위치와 교통로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위찬탈과 왕권 불안정으로 인한 신라하대의 왕위계승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든지 왕권강화를 위한 불사와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주 남산의 5m 이상이 되는 9세기 대의 불상들 역시 같은 의미의 불교정책과 관련된 배경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경주 남산의 신라시대 불상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가 그 토대가 되어 더욱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key words)_통일신라(統一新羅, Unified Silla), 경주 남산(慶州 南山, Namsan of Gyeongju), 열암곡(列岩谷, Yeolamgok), 왕정골 유형 석불입상(王井谷 類型 石佛立像, Stone Buddha statue Wangjeonggol at type)

▣ 투고일 2018년 5월 31일 | 심사개시일 2017년 6월 13일 |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27일 ▣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2. 한국어 문헌

姜友邦, 『新羅의 佛敎彫刻이 日本에 끼친 影響』,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 1982.

_____, 『石窟寺 本尊의 圖像小考』, 『美術資料』35, 1984.

_____, 『慶州 南山論』, 『慶州南山』, 悅話堂, 1987.

_____, 『印度의 比例理論과 石窟庵 比例體系에의 適用과 試論』, 『美術資料』52, 1993.

_____,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_____,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郭東錫, 『南山遺蹟 佛像考察』, 『慶州南山의 佛敎遺蹟 - 東南山寺址調查報告書-』Ⅲ, 國立文化財研究所, 1998.

郭勳, 『下代 前期 新政權의 佛敎政策과 佛敎界의 動向』,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敎』, 國學資料院, 2002.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南山特別展圖錄』, 199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남산』, 200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 2010.

_____,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2010.

_____,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2010.

國立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의 佛敎遺蹟Ⅱ - 西南山寺址調查報告書』, 1997.

_____, 『慶州南山의 佛敎遺蹟Ⅲ - 東南山寺址調查報告書』, 1998.

국립중앙박물관, 『特別展 민족의 통합 새로운 나라 統一新羅』, 2003.

_____,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권오영, 『신라 하대 중기(839~888) 왕위 계승과 정국의 안정』, 『지역과 사회』24, 부경역사연구소, 2009.

金春實, 『韓國 如來像의 着衣形式 변천』, 『중원문화논총』18·19, 2012.

金理那, 『慶州 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震檀學報』39, 1975.

_____,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敎彫刻 樣式』, 『美術史學研究』154·155, 1982.

- _____, 「統一新羅 佛教彫刻에 보이는 國際的 要素」, 『新羅文化』8, 1991.
- _____, 「統一新羅 佛教彫刻—統一新羅時代 藥師如來坐像의 한 類型—」, 『불교미술』11, 1992.
- _____,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 佛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97.
- _____,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97.
- _____, 「통일신라시대 미술의 국제적 성격」,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1.
- _____, 「경주 왕정곡 석조불입상과 그 유형」, 『有光敎一先生白壽記念論叢』, 財團法人高麗美術館, 2006.
- 金福順,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民族社, 2002.
- 文明大, 「景德王代의 阿彌陀 彫像問題」, 『李弘植博士回甲記念韓國史學論叢』, 1969.
- _____, 「太賢과 茸長寺의 佛教彫刻」, 『白山學報』17, 1974.
- _____, 「佛國寺 金銅如來坐像 二軀와 그 造像讀文(碑銘)의 研究」, 『美術資料』19, 1976.
- _____, 「慶州 石窟庵 佛像彫刻의 比較史의 研究」, 『新羅文化』2, 1985.
- _____, 「통일신라불상조각과 당불상조각과의 관계」,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1.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의 佛教遺蹟—塔 및 塔材調査報告書』, 1992.
- 박방룡, 「新羅 古都의 交通路」, 『경주사학』16, 1997.
- 徐志敏,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연구 - 광배와 대좌에 보이는 중기밀교 요소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006. 12.
- 신정훈, 「新羅 下代의 瑞祥이 가진 정치적 의미」, 『東洋學』1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 안현정, 「統一新羅 金銅菩薩立像의 類型과 特徵」, 『東岳美術史學』13, 2012.
- 유마리, 「경주 남산 9세기 마애불상의 고찰」, 『신라문화』10·1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4.
- 이성도, 「통일신라 마애불의 조형성 연구」, 『美術教育論叢』22, 2008.
- 이희진, 「경주 남산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연구」, 『정신문화연구』2014년 여름호 제37권, 2014.
- 임남수, 「열암곡마애불상과 남산」, 『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 2010.
- 임영애,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新羅文化』38, 2011.
- 丁元一·林元炫, 「南山의 自然環境」, 『特別展 慶州南山』, 국립경주박물관, 1995.
-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92.
- 조원영, 「불상에 새겨진 경남의 얼굴」, 선인, 2012.
- 주진령, 「統一新羅 下代 佛像의 二重着衣法 研究」, 『미술사학연구』233·234호, 2002.
- 지강이, 「신라시대 합천 치인리 마애불입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74호, 2012.
- 한국미술사학회,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1.

국문초록

경주 남산 열암곡사지는 고위산 남서쪽 백운계 본류의 오른쪽 열암곡에 위치한 절터이다. 현재의 열암곡사지는 보수된 모습이지만 그 전에는 건물의 초석들과 넘어지고 깨진 불상의 부재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는데, 2007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주변을 발굴조사하고 석조여래좌상과 절터를 보수·정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재 보수·정비된 석조여래좌상과 30m 정도 거리에서 5m가 넘는 대형 마애여래입상이 넘어진 채 발견되면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열암곡사지의 두 여래상에 대한 제작시기를 다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가람의 형성시기에 대해 살펴본 후 남산 불적을 통한 조각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어 보았다.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을 8세기 후반 작품들과 9세기 전반 작품들의 모습과 광배를 비교한 결과, 8세기 후반 상들에 비해 둥글어진 얼굴에 신체 비례가 다소 짧아졌고 어깨와 가슴이 좀 더 당당한 모습에서 9세기 작품들과의 친연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9세기 작품들과의 비교 결과 신체균형, 옷주름의 표현이든지 광배의 화염문 등의 표현이 좀 더 세밀하고 세련된 것으로 볼 때, 열암곡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제작시기는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다 앞선 9세기 전반 작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열암곡사지 마애여래입상은 801년 작인 경남 함안 마애약사여래삼존상 중 본존상의 봉긋이 솟아있는 육계와 사각에 가까운 얼굴, 단판 연꽃잎으로 이루어진 올림연꽃 대좌와 발의 표현 등에서 친연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9세기 전반기 작인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본존입상 얼굴, 대의 착의법과 옷주름 등과 비교하였을 때 9세기 전반기 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마애여래입상의 독특한 수인과 대의 옷주름 표현 등의 특징으로 볼 때 왕정골 석불입상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불상으로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남산 왕정골 석불입상,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 전웅수사지 출토 석불입상, 경주 황룡굴 출토 석불입상,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본존입상, 경주 남산 약수계 석불입상, 경북 상주 증촌리 석불입상 등의 사례가 있다. 이 중 손모양이 다른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육존불 중 서면 본존입상을 제외한 작품들의 경우 엄지와 검지 또는 중지와 결한 모습이라든지 방향성으로 볼 때 아미타여래의 수인인 구품인의 또 다른 유형의 수인을 가진 불상으로 추정하였다.

열암곡사지가 있는 곳은 경주 남산 남동쪽 끝단의 백운계로 이 지역에는 열암곡사지 외에도 양조암곡사지, 심수곡사지, 백운곡사 등 9세기 대의 절터들이 건립된 곳이기도 하다. 백운계 불상들은 열암곡사지 불상들이 만들어진 다음 가람과 불상들이 만들어져 배치되었던 것으로 남산 불적 가운데 9세기 대 유적이 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경주 남산에서의 8세기 대까지의 불사 중심은 완만한 구릉이 형성된 북·동쪽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

데 9세기 대에 들어서면서 급경사로 이루어진 백운계를 비롯한 남·서쪽에서도 불사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경주 남산의 지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당시 정치·사회적 배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신라 하대는 왕위찬탈과 왕권 불안정으로 인해 왕위계승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였을 것이고, 왕권강화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신라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와의 관계된 불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애장왕 2년 806년 새로운 사찰 건립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왕경 보다는 지방, 경주 왕경 보다는 남산을 중심으로 불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9세기 대 경주 남산에 5m 이상이 되는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 불상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Abstract

Stone Buddha Statue at Yeolamgok Temple Site, Namsan of Gyeongju

Lee, Heui jin^{*}

Yeolamgok Temple site at Namsan of Gyeongju, is situated to the right side of Baegun-gye, on the south-west side of Gowisan Mountain. The site had been scattered with foundation stones from buildings and other sculpture fragments but has now undergone repair work. In 2007, the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led an excavation and restoration project on the site and the Stone Seated Buddha. During the works, a large rock-carved Buddha, over five metres tall in size, was found lying face down about thirty metres away from the Seated Buddha which has now been repaired. This discovery attracted much attention.

This study has re-examined the production date of the two sculptures found on the temple site,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furthermore determined when the temple was erected, and the meanings and significance of Namsan Mountain monuments in the history of sculptures.

Compared to other works made in the late 8th-early 9th century, the Stone Seated Buddha has a fuller face and limbs that are shorter in proportion, and larger shoulders and chest that are closer to the 9th century works. As the body is more balanced and the details of the drapery and the flames on the halo more delicate and elegant than 9th century sculptures, this Buddha can be placed at early 9th century, earlier than the Stone Seated Buddha from Samneunggye.

The Rock-carved Stone Standing Buddha discovered on the same site resembles the Rock-carved Standing Bhaisajyaguru Buddha from Haman, Gyeongsangnam-do, made in 801, in

* Curator, Ulsan Museum

its broad jaws, high ushnisha, upward-turned lotus pedestal, and the shape of the feet. The face, drapery and the way the robe is worn also show familiarity with the main Buddha on the west side of the Carved Buddha Triads in Samneunggye, made in the early 9th century, placing the date at around the same time. However, the peculiarity of this Buddha's mudra and the drapery makes it possible to categorize the sculpture as a Wangjeonggol type. Other statues classified as the type are: Stone Standing Buddha from Wangjeonggol, Namsan, Gyeongju; Stone Standing Buddha at the Dongguk University Museum, Stone Standing Buddha from Jeonungsu Temple site, Stone Standing Buddha from Hwangryonggol, Gyeongju; the main Buddha on the west side of the Carved Buddha Triads in Samneunggye, Namsan, Gyeongju; Stone Standing Buddha from Yaksugye, Namsan, Gyeongju; and Stone Standing Buddha from Jeungchon-ri, Sangju, Gyeongsangbuk-do. With the exception of the Buddha from Samneunggye that has a different mudra, all others are presumed to have been depicted with varying versions of the mudra of the Nine Levels of Rebirth, the mudra of Amitabha, judging by the way the thumb and the index or middle finger are touching, or the direction the hands are facing.

Yeolamgok Temple site is at Baegungye, at the southeastern edge of the Namsan, Gyeongju, where many 9th century temple sites such as those of Yangjoamgok Temple site, Simsugok Temple site, and Baegungok Temple site remain. The statues of Baegungye, an important area where 9th century monuments are centred around, were made in the example of those at Yeolamgok Temple site and placed in other temples.

Until the 8th century, Buddhist works were mainly centred on the north and the east side of Namsan, where the slope was gentle, but in the 9th century, the steeper south and the west, including the Baegungye area, saw prolific increase of Buddhist monuments.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as well as geographical elements brought about this phenomenon. As there were contenders to the throne and the royal sovereignty insecure, the kings of the 9th century needed to reassert their legitimacy. The Buddhist art works probably served to maintain the political system and reinforce the monarch's supremacy as Buddhism held considerable influence over the Silla society in general. After the erection of a new temple was prohibited in 806,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King Aejang, Buddhist works were presumably made not around the capital but in the provinces, and in areas of Namsan that were outside the city. The large Buddhist sculptures of the 9th century that measure over five metres tall, were likely the result of such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purposes.